

# 근무 태만·초기대응 미흡·시신 바꾸기... 불신 키운 해경

## 합수부, 근무일지·교신 녹취록 등 확보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28일 목포해양경찰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이 소극적인 초동 조치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사고 초기 대응 미흡부터 시신 바꾸기, 직무 소홀에 떠넘기기, 막 말 등의 논란을 감안하면 해양 경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합수부는 이날 목포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침몰 사고 당시 신고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상황실 직원 근무 태만이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잘잘못을 가려내겠다는 게 합수부 입장이다. 목포해경이 내걸고 있는 '바다 안전과 치안 유지'를 책임지겠다는 슬로건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목포해경 문제점은**

신고학생 긴박한 구조 요청에 위·경도 물어보며 '담당 대처'

정확한 선박 내부상황 모르고 준비 안된 채 무작정 구조조서

선박 주변에서만 구조 활동 선제진입은 시도조차 못해

세월호 진입 신고도 않았는데 진도VTS, 조치 않고 방치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침몰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 방식도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많다.

당시 해경은 신고 접수 뒤 선박 주변에서만 구조 활동을 벌였고 선체 진입은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 까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현장 상황을 장악한 뒤 결단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바다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이라는 점에서 수동적 구조라는 목소리가 많다. 당시 출동한 해경 경비정은 공용체널인 초단파무선통신(VHF) 16번이 아닌, 진도 VTS의 고유 채널인 67번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 정확한 선박 내부 상황을 모른 채 무작정 구조조서에

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과정에서 희생자 확인을 소홀히 해 시신이 뒤바뀌어 희생자 가족들을 두 번 울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해경은 또 지난 16일 구조작업을 위해 해상크레인 파견을 긴급 요청했으나 정작 크레인인 사고해역에 도착한 이후 6일간 구조와 관련된 협의조차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

크레인 3대는 지난 18일~20일 사이에 사고 해역에 도착했지만 사고 현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크레인 업체 측의 주장이다.

또 구조·수색작업 지원에 나선 민간 잠수사들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과연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폐쇄적인 방침도 부실 대처에 한몫=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연안교통관제센터(VTS)의 무책임함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진도 VTS는 사고 당일 관제구역에 진입한 세월호가 진입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평소 진도 관제센터가 근무를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평소 세월호 여객선에 대해서는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진도VTS는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8시50분~54분 사이 해역에 있는 선박들과 교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월호 항적도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근무 태만 의혹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상 안전을 위한 통제시설인 잠수부 대만으로 이어지는데 한몫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28일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소방본부·해운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전방위 조사

### 부실 대응·해운비리 수사

### 해운조합 보험금 지급 과정 리베이트 받은 정황 포착

합수부는 관련 자료를 분석, 당시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최초 신고를 받은 뒤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이날 수사상환 브리핑에서 "모든 과정을 수사한다"는 원칙 하에 (119 종합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5~6명을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로 보내 해운조합 운영 현황과 관련한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3일엔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2000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해경은 해운조합 간부가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로비를 한 정황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비자금 200억 조성

### 유병언 일가 수사 속도

세월호 선사를 운영하는 청해전해운의 실제 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도 회장의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유 전 회장 일가가 불법 외환거래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 모아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계열사 실무

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 비자금의 용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회계사 김모씨를 불러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유 전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10년 동안 청해전해운의 회계감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9일까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딸, 핵심 측근 김해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 등은 이날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행기자 golee@

## "민간 잠수사 매도했다" 해경에 항의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한 민간 자원잠수사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에 나타나 해경이 민간 자원잠수사들을 매도했다며 항의.

○~28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 도중 A씨가 발표자인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과장을 향해 "민간 잠수사들이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장관이 잠수사들을 격려한다며 출항을 5분 이상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주장.

○~ 그는 2분여 동안 발언을 하다가 브리핑 뒤 "출항 전 누군가와 악수한 것을 장관인 줄로 착각했다"고 밝혀 결국 '장관의 출항 제지설'은 해프닝으로 확인.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 광주 동구 대인동 308-1, 2층상가 (대지 101.8㎡, 건물 145.4㎡)
- 광주 북구 북동 56-2 플럼빌리지(원룸) 5건 (각 호당 26.64㎡)
-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8 갤러리존 지하1층 상가 13호, 31호 (건물 38.1㎡, 건물 196.4㎡)
- 광주 남구 봉선동 85-3전, 산 61-2 임야(17,203㎡)
-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412, 412-2, 412-4 주유소, 휴게소, 모텔(대지 9,142㎡ 건물 774.9㎡)

상담 후 가격 결정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62-361-3515)로 문의바랍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관리소장 채용공고**

- ① 단 지 명 : 금호주택단지
- ② 소 재 지 : 광양시 금호동 희망길 12-14
- ③ 단 지현황 : 5,247세대
- ④ 자격조건
  - ① 주택관리사로서 시특별교육수료한 자 (소방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 ② 40세이상 ~ 55세미만
  - ③ 500세대이상 3년이상 관리소장 실무경험자
- ⑤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주택관리사자격증사본, 시특별교육수료증사본, 기타서류(자격증사본)
- ⑥ 제출처 및 기한 (방문접수)
  - ① 제 출 처 : 광양시 금호동 희망길 12-14 제철회관 311호
  - ② 제출기간 : 2014년 4월 30일(수) 17시까지
  -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⑦ 채용방법
  - ① 1차 : 서류심사
  - ② 2차 : 인사위원회 면접
  - ③ 3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⑧ 문의전화 : 061)799-1631 ~ 5

**광양제철주택관리소**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 등재서비스**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